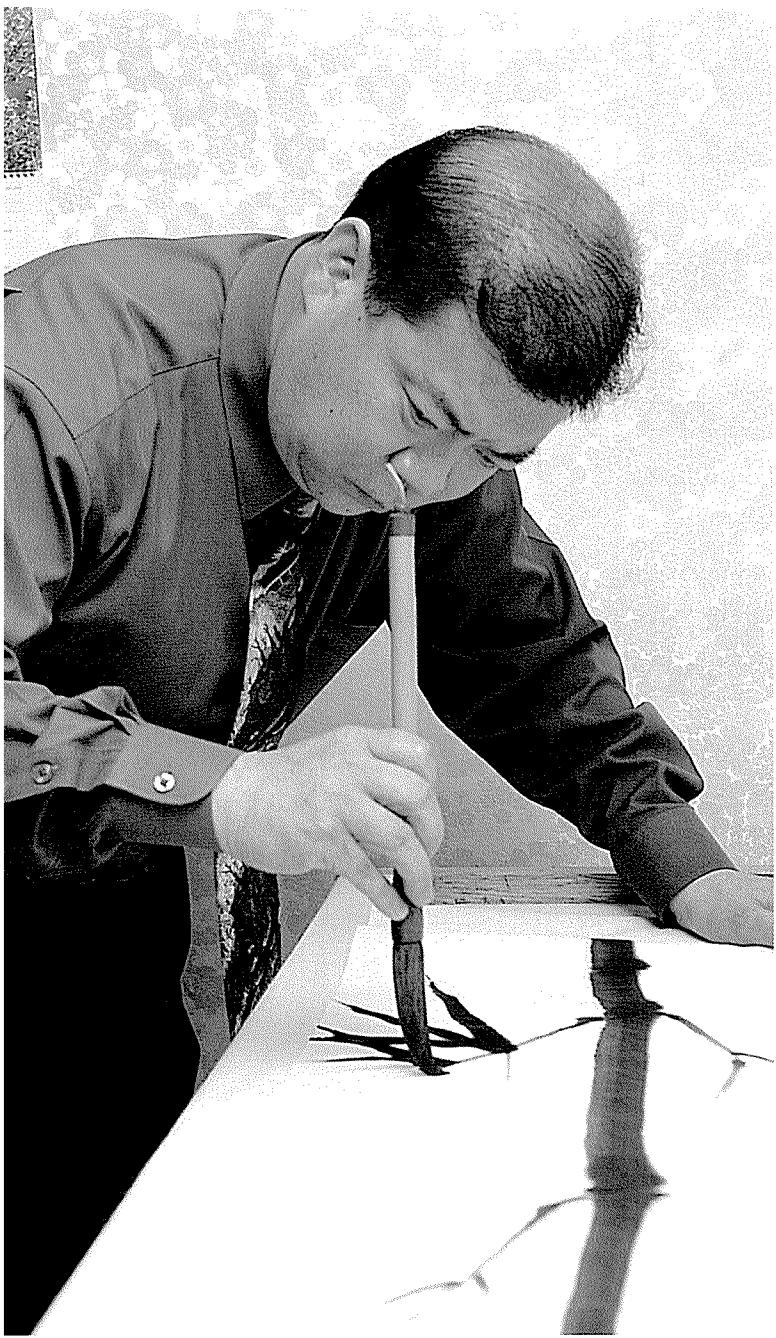


빵을 굽는 정성으로 그리는 사군자

의정부 '태극당 몽마' 대표 이재석

〈취재 / 김미선 sunny@mbakery.co.kr〉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경기도 미술대전 입상, 한국 문화 미술 대전 입상, 한국·홍콩 초대전 초대작가, 한국·필리핀 초대전 초대작가. 이것이 모두 무엇일까? 어느 이름 높은 화가의 프로필인가? 아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제과협회 의정부 지부 이재석(47) 상임 이사가 새롭게 쌓아 온 문인화가로서의 경력이다.

이재석씨는 주머니에 늘 두 종류의 명함을 지니고 다닌다. 한장은 그가 의정부에 위치한 '태극당 몽마'의 대표임을, 다른 한장은 아호가 무봉(武奉)인 문인화가임을 나타낸다. 두 장의 명함 모두 그에게는 똑같이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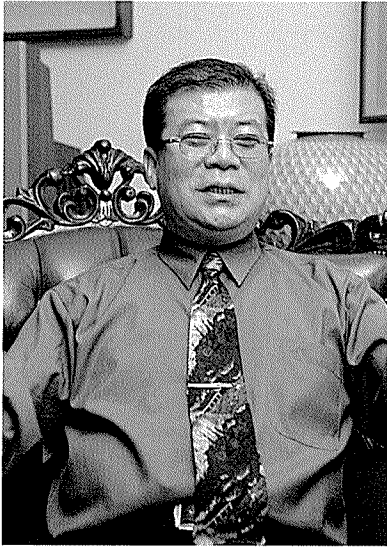
배움의 꿈을 좇아 시작한 작품 활동

“그림에 온 정신을 쏟다보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평생을 피워오던 담배도 끊었지요.”

이재석씨가 문인화가의 길로 접어든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써 각종 미술대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문인화 전시회에 단골로 초대되는 작가이다. 지난 해에는 기성 작가들에게도 바늘구멍이라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에 당당히 입상해 그는 이제 우리나라 문인화계의 가장 유망한 신인 중 한사람으로 떠올랐다.

그가 처음 문인화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림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글이 좋아서였다. 어렸을적 훈장님에게 좋아리 맞아가며 익힌 천자문과 명심보감이 고향을 떠나 제과 기술자가 되어서도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공부하리라 마음 먹었다.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면 무엇이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고야 마는 그의 성격상, 일단 제과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빵을 굽는 일에만 매진하다보니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있었다. 의정부에서 그의 제과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도 했



◀ 오전에는 제과점 대표, 오후에는 문인화가.
그에게는 두 장의 명함이 똑같이 소중한다.

다. 그러나 높아지는 명성에 반비례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글에 대한 열망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 그의 인생을 180도 돌려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를 반신불수의 상태까지 이르게 했던 교통사고. 병상에서의 3년은 앞만 보고 달렸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너무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전에 품었던 꿈을 펼쳐야겠다 결심했지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후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해암(海巖) 임흥재 화백의 화실이였다.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큰 꿈을 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각박했던 그의 인생에 쉬어가는 점 하나를 찍는다는 생각이었을 뿐.

스승인 해암 선생의 뜻은 달랐다. 그의 필치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것이다. 선생은 그에게 문인 화가의 길을 적극 권유했다. 돌봐야 할 사업이 있는 그로서는 선뜻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난(蘭)을 치는 재미에 빠져갔고, 더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한 욕심도 자꾸만 생겨났다. 일단 붓을 잡기만 하면 세시간이고 네시간이고 작품에만 전념했다. 가게를 돌보는 시간 외에는 그의 머리 속이 온통 흰색과 까만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전 작가를 목표로... 빵도 예술이다.

그는 요즘 얼마 남지 않은 경기도 미술대전을 목표로 하루 이홉시간 정도의 강행군을 하고 있다. 큰 제과점의 대표인 그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가게에 인사 이동 등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한 동안은 붓을 놓아야 한다. 그의 심란한 정신 상태가 그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필력(筆力)도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석씨는 스스로 행운이라 자부한다.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장 식구들의 덕택입니다. 모두들 어지간해서는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없을 만큼 집안일처럼 척척 해내고 있지요.”

언제나 친절함 미소로 단골 손님을 늘려가는 아내의 내조 또한 그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의정부시지부는 지난 2월 25일에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이재석씨는 1등에게 그의 작품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뜻밖의 선물에 지부 회원들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작품을 회사할 예정이다. 작품 속에 어린 그의 예술 혼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이다.

“빵을 굽는 것도 예술입니다. 정성스럽게 구운 빵은 곧 작품이고, 그 정성이 고객들의 마음으로 옮겨가 그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재석씨의 목표는 국전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집념과 노력이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제과인 출신 국전 작가’ 무봉(武奉) 이재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5]



▲ 이재석씨가 그린 바위 위의 난초.
그는 사군자 중에서 난초를 가장 좋아한다.